

밸류업 실망감에 숨고르기

“이익 모멘텀, 당분간 좁은 박스권 흐름 예상”

이달 시장 변곡점 될 이벤트 많아
FOMC 결과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저항선인 2700선 돌파 가능성
슈퍼화요일, 美 대선 윤곽 지표
이후 불확실성 시장 가격 반영
주춤 등 저PBR주 상승동력 잔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저주가순자산 비율(PBR)주가 약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코스피는 지난주 4거래일 중 3거래일 간 하락세를 탔으며, 돌아오는 주에도 특별한 상승 압력없이 박스권 흐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0.24% 하락했다.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로 인해 기대감이 올랐었지만, 오히려 시장의 아쉬움을 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달 동안 코스피지수는 5.81% 상승했는데, 대부분 저PBR주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밸류업 실망감과 함께 증시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다만 3월에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이벤트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3월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월 말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저PBR 업종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인 점은 하방



코스피가 전 거래일(2652.29)보다 9.93포인트(0.37%) 내린 2642.36에 장을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3.39)보다 0.43포인트(0.05%) 하락한 862.96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3.6원)보다 2.1원 떨어진 1331.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경직성이 개선되면서 지수 하단레벨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지수 저점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잠재력도 높아지는 편이기에 3월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2700선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준의 상반기 정책 전환 전망, 양호한 주요국 경기 모멘텀, IT 중심의 견고한 실적 전망 등을 감안하면 하방 경직성도 높을 것”이라며 “주가 조정이 온다면 다른 자산군으로 자금 이탈이 일어나기보다는 증시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월 FOMC 이전까지 금리 조정 국면이 유지될 것”이라며 “당장의 지수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나 이익 모멘텀이 정체된 환경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

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5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비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날로, 11월 미국 대선에 앞서 윤곽을 잡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선출이 확정되면, 대선 불확실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이라며 “슈퍼 화요일 이후부터 대선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되면,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같은 날 미국 2월 공급관리 협회(ISM)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되며, 중국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최초로 공개된다.

중국이 부진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3월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들 역시 연준의 FOMC 등을 변수로 꼽고 있지만, 3월 주주총회 시즌, 4월 총선, 6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 등 저PBR 테마주의 상승 동력이 아직 잔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육식 가리기’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트리거가 된 외국인 자금 유입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라며 “외국인 자금은 ‘저PBR주’ 위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관심종목

한전, 역대실적 다시 한번? 기대감에 목표가 줄상향

최근 반등에 성공한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급 실적이었던 2016년에 버금가는 영업이익을 올릴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증권업계는 한국전력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전력의 주가는 2만4800원으로 지난 1월 19일 저점(1만7970원) 대비 무려 38% 급등했다.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심리도 확대됐다. 올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63억원, 541억원을 순매수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8조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22조5186억원, 영업이익은 1조884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이다. 세 차례 전기료 인상과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하락한 것이 실적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는 올해 한국전력이 연간 실적에서도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하나증권은 2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현대차증권(2만원→3만2000원), SK증권(2만1000원→3만원) 등도 목표주가를 높였다 /원관희 기자

뉴욕증시, ‘AI 열풍’에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주 나스닥지수 1.6만선 기록
파월 발언·고용 지표 발표 앞두고
강세장 이어질까... 관심 쏠려

최근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인공지능(AI) 관련주 열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스닥·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번 주(3월 4일~3월 8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나스닥지수는 증가 기준 1만6000선을 기록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을 웃도는 수준에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1주일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 3만9131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인공지능(AI)·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펼쳐지면서 지수 전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증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 미국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 AI 투자



뉴욕 월스트리트 모습. /뉴시스

열풍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등 대장주 외에 다른 반도체주와 기술주로도 번지고 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30% 이상 폭등하자, 반도체 회사 AMD의 주가도 5% 이상 뛰어 시가총액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제프 클라크 델 최고운영자(COO)는 “AI 서버 출하가 8억달러에 이르고, 주문량은 약 40% 증가했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여파로 델 주가는 약 32% 급등했다.

이번 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강세장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월 의장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의회에 출석한다. 파월 의장은 6일 미 하원에, 다음 날인 7일 상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전의 발언과 대체로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 연준은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한다. 이외에도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등 주요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된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뜨거운 고용 시장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연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적당히 둔화한 고용 수치를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 집계 따르면 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21만명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에 기록한 상승세(35만3천명)보다는 훨씬 둔화한 수준의 고용 증가세다. 2월 실업률은 3.7%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업 쪽에서는 브로드컴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됐다. 브로드컴 또한 AI 랠리를 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는 5일 미 전역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예정됐다. /원관희 기자

금감원

불법리딩방 61건 적발

금융감독국이 최근 6개월간 미등록 투자자문 등 이른바 불법리딩방을 집중 단속해 총 61건의 불법거래 정황을 적발했다. 불법리딩방은 허위정보로 투자회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행위에 회원들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사·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低) 주가 순자산비율(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 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